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마케팅 본격화...현대삼호중과 맞손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협조체계 구축 등 교류·협력 추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더 많은 치유객 유치 힘쓸 것"

완도군과 현대삼호중공업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김현철 완도부군수와 한정동 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은 지난 15일 현대삼호중공업 접견실에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맺은 첫 번째 협약이다.

양 측은 협약을 통해 ▲해양치유산업 홍보와 현대삼호중공업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협조 체계 구축 ▲해양치유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 회의 등 장소 활용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철 완도부군수는 "해양치유는 청정한 해양환경과 비교 우위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완도에서 할 수 있는 건강 증진, 힐링 프로그램"이라며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과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치유객을 유치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정동 부사장은 "미래 해양산업의 선두 주자인 완도군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완도군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는 물론 직원들의 심신 치유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초로 건립된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해수·해조류·머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딸라소플, 명상플,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스톤·향기 테라피 등 16가지 다양한 해양치유를 즐길 수 있다.



김현철 완도부군수와 한정동 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은 지난 15일 현대삼호중공업 접견실에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완도군 제공)



강진청자축제 23일 개막...반값여행도 시작된다

강진군은 올해 첫 축제의 포문을 열어줄 '강진청자축제'를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52회째를 맞이한 이번 청자 축제는 '강진에 올래 청자방 놀래'를 주제로 8개 분야, 68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이번 축제는 청자의 정체성을 살린 '물레와 놀래'를 테마로 물레를 직접 돌리며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흔치 않은 체험 코스가 마련되며, 여기에 맞춰 '전국 물레 성형 경진대회'를 열어 분위기를 띄운다.

청자와의 다각적인 만남을 위한 명품 청자 판매관, 차와 도자의 만남, 청자와 백자의 만남, 장미와 청자의 만남이 '강진 명품 청자 아울렛 4종'의 이름으로 선보인다.

차와 도자의 만남을 통해 '이한영 차문화원'에서 제공하는 강진 차와 청자 찾전을 같이 판매하며, 장미와 청자의 만남에서는 화훼의 도시, 강진의 명성에 걸맞게 칠량에서 공수된 저마다 다른 15가지 빛깔의 장미들을 청자 화병에 꽂아, 청자의 바탕색과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연출해 청자 구매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한 다산(茶山) 정약용이 극찬한 강진의 '차'와 전남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장미'와 도자의 앙상블은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까지 한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 진일보한 마케팅 축제로 평가받는다.

축제장 한쪽에는 강진 주요 정책 4종사인 푸소, 고향사랑기부제, 반값 가족 관광 강진, 4차 산업혁명 활용 등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며 '대면 군정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자축제와 같은 기간에 열리는 '강진 백련사 동백축제'도 청자축제 관광객 물이에 큰 동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동백축제는 만덕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동백나무 1500여 그루의 아름다운 장관과 함께 다산과 혜장 스님이 나누어 사적 공간인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에 이르는 1km의 오솔길은 소나무, 비자나무, 차나무 등 천연림이 우거져 따뜻한 봄별을 받으며 호젓하게 걸어보기 그만이다.

특히 '반값 가족여행 강진'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청자축제가 견인하고 반값 혜택이 밀어주는 관광도시, 강진의 올해 첫 도전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모일지 벌써 지역 상인들의 기대가 크다. 반값 관광에는 지난 15일 기준, 1987팀 5829명이 신청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2023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진도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가 등급)기관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 전국 광역(17)·기초(226)자치단체, 시도교육청(17)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분야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총 3개 분야,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20개 지표를 종합해 5개 등급으로 차등 평가한다.

진도군은 지난 2022년 '라'등급에서 2023년은 3단계가 상승한 '가'등급을 달성해 전국의 군 단위에서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민원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도가 반영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국

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았다.

군은 군민을 위한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민원행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살기좋은 진도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어려운 때보다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서비스와 편의시책을 발굴해 군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정남진 장흥 '아르미쌀', 몽골 현지인 입맛 공략

3월 호주 수출·4월 미국·싱가포르 수출 예정



장흥군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 정된 '아르미쌀' 이 몽골에 2차 수출된다고 밝혔다.

했다.

이는 장흥군과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지난 2021년 전담 최초로 '새청무' 쌀을 수출한데 이어 꾸준한 수출협약, 해외 판매장 개설, 해외 쌀 판촉 행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로 12톤의 아르미쌀을 ㈜NH농협무역을 통해 몽골 Green International 현지마켓에 수출할 예정이다.

또한 아르미쌀은 세계 고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는 3월에는 호주 수출 30톤이 있으며, 4월에는 미국에 이어 싱가포르까지 수출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수출품목의 전략화와 다양화를 위해 현지에서 인기 좋은 진공 소포장 상품 개발로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도 집중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쌀 수출은 장흥군 쌀산업 발전과 전남 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흥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오는 3월에는 중국 청도에 장흥군 특산물 판매센터를 개관하고 수출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